

# 광주·전남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11배 급증

## ■ 광주·전남 유가증권 상장 15개사 1분기 실적

회사명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한국전력공사	1184억	5716억	15조753억
한전KPS	441억	564억	3216억
금호건설	174억	223억	4126억
광주신세계	124억	138억	400억
조선내화	41억	87억	1789억
대유플러스	26억	31억	1233억
금호에이치티	25억	21억	609억
부국철강	23억	26억	441억
세화아이엠씨	23억	△28억	162억
보해양조	15억	13억	214억
대유에이텍	14억	△5억9400만	3663억
DSR제강	14억	△4억3800만	458억
금호타이어	△125억	4억5200만	5856억
다스코	△32억	△36억	532억
화천기공	3억9000만	△2억6400만	437억
합계	1905억	6747억	17조3890억
전년동기비(%)	1032.2	46	1.9

〈단위: 원〉  
〈자료: 금융감독원〉

한전 등 15곳 1905억원 순이익...금호에이치티·대유에이텍 흑자 전환  
보해양조 전년보다 46배 오른 15억원...부국철강 407%·한전 120% ↑  
한전 제외한 14개사 매출 2조3137억원...전년비 매출 증가율 17.6%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올 1분기 광주·전남 상장사 15개사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11배 넘게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1분기 매출액 7위에 든 한국전력을 제외하더라도 지역 상장사들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전남 유가증권 상장사 15개사(우리 증금 제외)의 당기순이익은 190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168억원)보다 11.3배(1032.2% ↑)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들 15개사 가운데 금호에이치티와 대유에이텍은 각각 순이익 25억원, 1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보해양조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6배 수준으로 오른 15억원을 나타냈다. 부국철강은 407.6% 증가한 23억원, 한국전력은 120.9% 늘어난 118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두 자릿수'

를 나타낸 기업들은 4개사로, 당기순이익은 광주신세계 124억원, 금호건설 174억원, 조선내화 41억원, 한전KPS 441억원을 시현했다.

화천기공은 전년보다 88.1% 감소한 3억9000만 원 순이익을 냈고, 대유플러스와 DSR제강 당기순이익은 각각 26억원, 14억원으로 80.3%, 53.0% 줄어 들었다.

다스코와 세화아이엠씨는 적자를 유지했으며, 금호타이어는 적자 폭을 줄였다.

한전을 제외하더라도 14개사 당기순이익은 721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368억원 적자를 벗어났다.

한전을 포함한 15개사의 매출액은 17조3890억원으로, 전년보다 1.9%(3286억원) 증가했다. 10개사가 매출 증가율 '두 자릿수'를 나타냈고, 세화아이엠씨(-35.4%), 조선내화(-3.4%), DSR제강(-0.5%), 화천기공(-0.5%), 한전(-0.1%) 등 5개사는 매출이 줄었다.

한전을 뺀 14개사 매출액은 2조3137억원으로, 전년비 매출 증가율은 17.6%가 된다.

광주·전남 코스피 상장기업 15개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747억원으로, 1년 전(4621억원)보다 46.0%(2126억원) 증가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1410억원(32.8%) 증가한 한전을 제외해도, 14개사 영업이익은 316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3.3배(226.2% ↑) 수준으로 늘어났다.

올해 1분기 15개 상장사의 총 직원 수는 3만 8595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 3만8178명보다 417명(1.1%) 늘어났다.

연간 급여 총액은 7494억원에서 7942억원으로 6.0%(448억원) 증가했다. 1인 평균 연봉은 2025만원에서 2127만원으로 5.1%(102만원) 늘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93개(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분기 영업이익은 44조398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73% 증가했다.

순이익도 49조1074억원으로 361.04%나 부풀었고 매출은 538조3459억원으로 9.08%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44.30 (-12.12)
↓ 코스닥	948.37 (-17.26)
↑ 금리(국고채 3년)	1.116 (+0.021)
↑ 환율(USD)	1127.10 (+0.10)

### “기기 3대를 키보드 하나로”

#### 삼성, 스마트 트리오 500 출시

삼성전자는 뛰어난 연결성과 휴대성을 갖춘 무선 키보드 '삼성 스마트 키보드 트리오 500'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3개의 블루투스 키를 탑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최대 3대의 기기를 등록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키를 누르기만 하면 손쉽게 필요한 기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각 기기와 연동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단축키로 설정해 바로 실행할 수도 있다.

우선 검은색 색상으로 출시되며, 향후 흰색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판매가격은 4만9500원으로, 삼성전자는 오는 31일까지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일부 오픈마켓에서 출시 기념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상의, 마케팅·판로개척지원 기업 모집

### 6월11일까지 신청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6월11일까지 '기업맞춤형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2021년 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유망기업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매출 급감과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마케팅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소재 기업이다. 공공판로 컨설팅지원 10개사와 e-브로슈어 제작지원 10개사, 신기술 유망제품 수요처 매칭간담회 5개사 등 25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필요시 연계 패키지 지원도 가능하다.

공공판로 컨설팅지원사업은 지역기업에 각종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및 지자체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e-브로슈어 제작지원은 코로나19로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e-브로슈어 제작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및 전국 상공회의소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신기술 유망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을 돕는다.

여기에 지역 유망기업의 신기술 제품 홍보를 위해 관련업종, 유관기업군과 '신기술 유망제품 수요처 매칭간담회'를 5차례 개최하고, 신기술 유망제품 언론사 기획보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술력과 상품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마케팅 역량부족으로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기업들이 많다"며 "신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 서류제출 전면 폐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금융거래확인서 제출을 전면 폐지하는 등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낮추고 정책자금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은 중진공이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평가회사와 연계해 직접 차입금 규모 및 연체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종이 서류 징구 없이도 정책자금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중진공을 설명했다.

중진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업당 평균 거래 금융기관은 5곳 내외로, 그동안 정책자금 신청기업은 평가와 대출 단계에서 10여건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신청기업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과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정책자금 업무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기업들은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20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당 3영업일 내외의 업무처리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올 여름 인건 속옷으로 시원하게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4층 속옷 매장에서 자국이 덜하면서 땀이 잘 흡수되는 인건 소재 속옷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 광주정보문화진흥원·ICT 12개사, 지역 인재 함께 키운다

### 취업연계 인력양성 업무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4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호남권 인공지능·정보통신기업 12개사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취업연계 인력양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참여 기업은 ㈜엘탑, ㈜인포텍스, ㈜KDA, ㈜

라젠, ㈜루프리코리아, ㈜유니컴퍼니, ㈜이스트소프트, ㈜엔지비파워, ㈜에픽모바일, ㈜비에스소프트, ㈜파인트리, ㈜파디엠 등 12개사이다.

진흥원과 12개 기업은 총 2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해 60시간의 현장 실습 교육을 벌인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진흥원은 실습 인원당 최대 300만 원 현장 실습 비용을 지원한다.

/백희준 기자 bhj@

#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